

#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

### 文대통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열겠다”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9%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0%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다.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했다.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 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지탄·기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추진하고, 전기·수소차, 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차, 친환경 선박의 기술 개발과 수요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 총 8조4000억원, 민간이 총 180조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을 사전 방문해 디지털 트윈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에서야 할 산업은 없다.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라며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혁신 인재를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도전과 축적’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혁신 인재를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도전과 축적’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

기·낙후지역 ‘지방투자’, R&D 설비 투자 등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생산 비용, 노사 문제, 환경 규제와 같은 애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무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

## 사회적경제 연계사업 추진 ‘탄력’

원광대·국민연금,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와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적경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9일 원광대에 따르면 원광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8일 원광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추진과 사회적경제 분야 인력양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원광대는 지난해 12월 박맹수 총장 취임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해결에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복으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공단은 사회적가치실현단을 정식 기구로 발족시켜 지역연계 및 사회공헌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학과 함께 추진하게 된다. 원광대는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경제 교육과 인력양성 사업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재직자 및 가족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특별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박맹수 총장은 “지역사회의 복지와 사회적경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몸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 후 지역의 사회복지 및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협약이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영민기자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지원 대폭 확대

농촌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청년 인력의 농업 및 농촌으로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학기부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다. 올해 2학기엔 신규 장학금 500명 내외를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학업장려금은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을 말한다. 학기 중 농업 현장 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O.T(5시간), 지정교육(20시간), 자율교육(5시간) 등 의무교육 30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장학생들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학기 수에 6개월을 곱한 만큼의 기간 동안 농촌에 소재한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 농업 인력 양성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명칭이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바뀐다.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편·시행된다. 올해 2학기 중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3~4학년 학생 중에도 직전 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은 해당 장학금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2개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모두 선발될 경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또 정부는 학과·전공 제한 없이 농업인의 자녀인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해 소득, 성적 등에 따라 학기당 5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김영태기자

## “업무보조부터 고객 응대까지 미리 경험해요”

### 전은, 대학생대상 현장실습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9일부터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실습은 도내 대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전북은행 본점 및 영업점에 배치돼 본부 업무지원, 객장 고객 안내, 지점 내 사무보조, 자동화 기기 사용 안내 등 고객 응대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한 참가자는 “은행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직장 분위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기대된다”며 “이번 실습 기간에 더욱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앞으로 금융권에 꼭 취업 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이번 현장 실습을 통해 직장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장애 진로 선택 및 취업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 전북농협·미용봉사단, 재능기부로 행복 나눔

전북농협과 노재마을은 19일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전북이미용봉사단과 공동으로 진안군 안천면 노재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이미용봉사단 소속 미용사 4명은 노재마을 회관에서 50여명의 어르신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커트, 파마, 염색 등의 미용 봉사로 행복 나눔을 실천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미용 재능봉사로 농촌 어르신들 머리를 가꾸어주려 행기는 봉사단이 있어 든든하며 고령화

로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촌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협에서 육성 중인 진안 노재마을 팜스테이마을은 오감 만족 자연환경과 유기농 먹거리가 넘치는 마을로, 마을 동남쪽에는 국사봉이, 동북쪽에는 형제봉이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마을에서는 포도 따기 체험, 포도씨로 작품 및 두부 만들기, 고구마 캐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